현 담

玄潭 · 사주 관상 심층 감정

사주 관상 심층 정밀감정서

이 사주를 한마디로

서지연님은 초가을 오후의 볕 같은 사람입니다. 뜨겁게 내리쬐지는 않지만, 한 번 닿은 것은 끝까지 말려 주는 볕입니다.

2026년 기준 작성

서지연님

양력 1991-09-03 14시 40분

견본

서지연님, 먼저 이 결과부터

혼자 다 들려다 지치는 사주예요. 벌리는 감각은 크게 타고났는데 들 힘은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나누는 법만 익히면 되는 사람이에요.

요즘 안 풀린다고 느끼셨죠? 서지연님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2022년부터 이어진 흐름이 2032년에 한 번 바뀌어요. 그 뒤도 서두를 때는 아니에요.

큰 흐름이 가장 좋아지는 건 2042년부터예요. 쉰 줄에 들어서면서 20년 가까이 흐름이 순해져서, 그때부터가 서지연님의 본편이에요.

생각이 빠르고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데, 속은 잘 안 보여 주는 분이에요. 배운 걸 자기 말로 정리해서 내놓는 일, 사람을 읽고 골라야 하는 일에서 들인 노력보다 결과가 크게 나와요.

앞으로 12년 중 가장 좋은 해는 2034년·2035년·2037년이에요. 가장 조심할 해는 2031년·2032년·2033년이에요.

돈·일·인연 — 따로 좋은 해가 있는 게 아니라, 위의 가장 좋은 해에 함께 풀려요.

도전 — 2032년에는 환경이 먼저 흔들리니 자리를 지키시고, 새로 걸고 나서는 건 2034년으로 미루세요.

SAMPLE

앞으로 12년, 그리고 당장

2026 35세	2027 36세	2028 37세	2029 38세	2030 39세	2031 40세	2032 41세	2033 42세	2034 43세	2035 44세	2036 45세	2037 46세

■ 매우 주의 · ■ 주의 · ■ 보통 · ■ 좋음 · ■ 매우 좋음

해마다의 근거는 부록 E에 있어요.

주의는 나쁜 해가 아니라, 벌이기보다 지키는 해예요.

이번 주에 들어오는 부탁 중 하나만 거절해 보세요.

2022년에 시작된 10년의 중반이에요. 2032년에 흐름이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고 나면 그동안 쌓아 둔 걸 꺼내 쓰는 쪽으로 가세요. 새로 배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34년에 내놓을 결과물을 지금부터 모아 두시면 돼요.

초록과 붉은색, 동쪽과 남쪽, 원목과 천연 섬유가 서지연님을 받쳐 줘요.

가늘고 깊은 눈매가 이 얼굴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라, 사람을 정확히 읽어야 하는 일에서 값이 매겨져요.

어디선가 도화살 있다는 말 들으셨을지 몰라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엉뚱해요. 사람 끄는 힘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사생활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 서는 일에서 성과가 되는 힘이에요.

바쁘시면 이렇게 읽으세요 — 7장(앞으로 12년)과 9장(물어보신 것)부터. 시간 나실 때 1장부터 천천히 읽어 보세요.

샘플

SAMPLE

서지연님의 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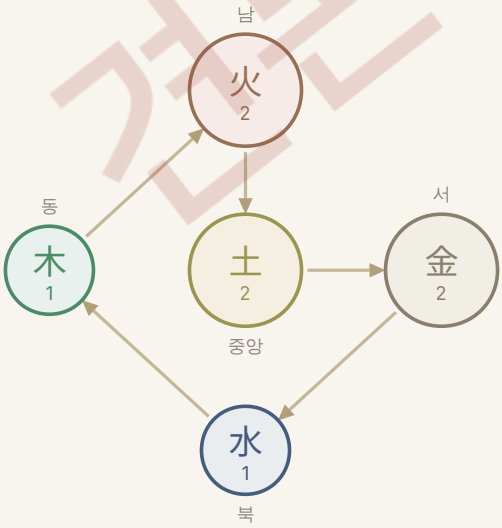
시주	일주	월주	연주
乙未	丙子	丙申	辛未

여 · 양력 1991-09-03 14시 40분

일간 **丙(火) 양간** · 격국 **편재격**

용신 **木·火** · 기신 **金·水·土**

2026년 기준 작성



甲乙 木 · 丙丁 火 · 戊己 土 · 庚辛 金 · 壬癸 水

차 례

서(序)

사주 원국 — 여덟 글자와 판정

본문

제1장 · 타고난 그릇
제2장 · 성격과 기질
제3장 · 관상 — 얼굴이 말하는 것
제4장 · 사주와 관상이 함께 가리키는 것
제5장 · 반복돼 온 패턴
제6장 · 지금 이 자리
제7장 · 앞으로 12년, 그리고 그 뒤
제8장 · 실천 가이드
제9장 · 주제별 상세 풀이
제10장 · 마지막으로
판정 도해 — 대운 · 앞으로 12년 흐름 · 월별 흐름

부록

A 명식 상세 · B 오행·십성 · C 신살·공망 · D 대운 · E 세운 · F 월별 · G 용어 풀이
저작권 고지

도해 찾아보기

도해 一 · 사주 네 기둥 · 16쪽
도해 二 · 타고난 다섯 기운 · 17쪽
도해 三 · 지장간 구조 — 여덟 글자의 속 · 18쪽
도해 四 · 십이운성 — 기운의 물결 · 19쪽
도해 五 · 신살 — 타고난 무늬 · 20쪽
도해 六 · 십성 분포 · 29쪽
도해 七 · 대운 — 인생의 계절 열 마디 · 98쪽
도해 八 · 앞으로 12년 흐름 · 99쪽
도해 九 · 월별 흐름 — 다가올 달들 · 100쪽
관상 표 · 42쪽

SAMPLE

일러두기 — 이 책을 읽는 법

이 감정서의 모든 색과 기호는 뜻을 갖습니다. 장식으로 쓰인 색은 없습니다.



木 나무 — 이 색이 칠해진 글자·칸은 나무(木)의 기운입니다



火 불 — 이 색이 칠해진 글자·칸은 불(火)의 기운입니다



土 흙 — 이 색이 칠해진 글자·칸은 흙(土)의 기운입니다



金 쇠 — 이 색이 칠해진 글자·칸은 쇠(金)의 기운입니다



水 물 — 이 색이 칠해진 글자·칸은 물(水)의 기운입니다



붉은색이 보이면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계신 자리이거나, 이 사주에 이로운 것입니다. 붉게 칠해진 곳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금(金彩) — 제목과 구획선입니다.

판정 기호는 두 가지 체계를 씁니다. 같은 시기를 두 각도(그 해 / 그 달)로 보기 때문에 기호가 다릅니다 — 혼동하지 않도록 여기서 밝힙니다.

연도별(그 해의 운) — ★★ 매우 좋음 / ★ 좋음 / · 보통 / ▼ 주의 / ▼▼ 매우 주의.

월별(그 달의 운) — ◎ 좋음 / ○ 무난 / — 보통 / ▼ 주의 / ▼▼ 매우 주의.

대운은 기호 없이 해와 같은 말(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주의 · 매우 주의)로 부릅니다.

좋음 이상인 해와 달에는 새로 시작해도 좋고, 주의가 붙은 해와 달에는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이 감정서의 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그 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연 나이)입니다.

본 감정서는 명리학적 해석으로, 의료·법률·투자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견본

SAMPLE

사주 원국

태어난 연·월·일·시를 각각 두 글자로 세운 여덟 글자입니다. 아래 표가 이 감정서 전체의 근거이며, 뒤따르는 모든 풀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시주	일주	월주	연주
십성(천간)	정인	본원	비견	정재
천간	乙	丙	丙	辛
지지	未	子	申	未
십성(지지)	상관	정관	편재	상관
지장간 여기	丁 겁재	壬 편관	戊 식신	丁 겁재
지장간 중기	乙 정인	·	壬 편관	乙 정인
지장간 정기	己 상관	癸 정관	庚 편재	己 상관
십이운성	쇠	태	병	쇠
공망	—	—	공망	—
신살	도화살 · 화개살 · 문창귀인(文昌) · 원진살(怨嗔) · 삼재(巳午未년)			

지장간은 지지 속에 숨어 실제로 작용하는 천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곱 자리는 비겁 1·식상 2·재성 2·관성 1·인성 1이고, 지지 속 지장간을 따로 세면 비겁 2·식상 3·재성 1·관성 3·인성 2입니다.

견본

SAMPLE

판정

신약(身弱) — 가운데가 신강·신약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일간	격국
丙(火) 양간	편재격
용신 — 살려야 할 기운	기신 — 눌러야 할 기운
木·火	金·水·土
공망	
申·酉 (원국 월 자리)	

억부로 木·火를 용신으로 잡았습니다. 한난조습은 균형이 잡혀 있어 조후로 보탤 기운이 없었습니다.

견본

SAMPLE

玄 潭

서지연님

사주 관상 심층 정밀감정서

본문 열 장 · 도해 아홉 장 · 부록 일곱 갈래

견본

SAMPLE

第 一 章

타고난 그릇

SAMPLE

제1장 · 타고난 그릇

이 사주를 한 문장으로 하면

"서지연님은 초가을 오후의 볕 같은 사람입니다. 뜨겁게 내리쬐지는 않지만, 한 번 닿은 것은 끝까지 말려 주는 볕입니다."

한여름 정오처럼 사방을 태우는 힘은 애초에 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오후의 볕에는 오래 머무는 성질이 있습니다. 서지연님이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떠올려 보시면, 단숨에 터뜨려 끝낸 일보다 몇 해를 두고 붙잡아 결국 모양을 만들어 낸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힘으로 밀어붙이면 유독 빨리 지치고, 사람과 때가 받쳐 주면 놀랄 만큼 멀리 가는 사람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내가 다 들겠다"는 자세로 들어가면 중간에 몸이 먼저

견본

SAMPLE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할 사람을 붙이고, 될 때를 기다려 올려놓으면 남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끝까지 하지" 하고 봅니다. 힘의 총량이 크지 않은 대신 방향을 잃지 않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서지연님의 인생에서 늘 문제가 됐던 건 능력이 아니라 **배분**이었습니다. 일을 못 해서 힘들었던 적은 거의 없고, 일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리고 받은 걸 혼자 들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벌리는 감각은 타고났는데 그걸 감당할 체력과 사람을 함께 타고나지는 않았습니다. 머리로 그림을 그리는 속도가 몸이 움직이는 속도를 늘 앞질러서, 시작은 늘 화려하고 중반에 한 번 꺾이고, 그 꺾인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끌고 가 결국 끝은 보는 — 그게 서지연님의 일하는 모양새입니다.

SAMPLE

그래서 서지연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작고, 판이 깔리면 커지는 사람. 자기 능력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고 다만 "언제, 누구와" 쓸지만 정하면 되는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정하지 못해서,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혼자 다 들어서 번번이 지쳐 온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 사주 근거

태어난 날의 하늘 글자, 곧 이 사주의 주인공 글자는 병(丙)입니다. 병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가을 신(申)월, 쇠(金) 기운이 가장 센 계절에 떴습니다. 태양이 제 계절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 '초가을 오후의 볕'이라는 비유를 쓴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데울 대상이 넓고 계절이 서늘합니다.

이 사주의 기본 틀, 곧 세상을 살아가는 타고난 쓰임새는 **편재격(偏財格)**입니다. 태어난 달의 지지 신(申)이 품은 본기 경(庚)을 기준으로 잡은 격으로,

SAMPLE

크게 벌리고 크게 쓰는 재물 기질을 뜻합니다. 월급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틀이 아니라, 판을 벌려서 만들어 버는 틀입니다. 게다가 이 격은 **성격(成格)** — 틀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표현하는 힘이 재물로 이어지는 통로(식상생재)가 뚫려 있어서, 말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 곧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힘의 양이 문제입니다. 판정은 **매우 약한 편**(신약)입니다. 태어난 달이 쇠 기운의 계절이라 주인공 글자가 계절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실령), 여덟 글자 가운데 자기편이 되는 불 기운은 둘뿐인데 일지의 자(子)가 찬물이라 발밑이 식어 있습니다. 벌릴 틀은 크게 타고났는데 들 힘은 적게 타고난 — 이 어긋남이 서지연님 인생 전체의 열쇠입니다.

힘이 되는 기운(용신)은 나무(木)와 불(火)이고, 부담이 되는 기운(기신)은 쇠(金)·물(水)·흙(土)입니다. 그런데

SAMPLE

여덟 글자 안에서 나무는 단 하나, 태어난 시각의 하늘 글자인 을(乙)뿐입니다. 화초·덩굴에 해당하는 여린 나무가 인생의 끝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힘이 되는 기운이 원래부터 약하게, 그것도 뒤쪽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스스로 힘을 내서 여는 구조가 아니라 때가 와야 열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담이 되는 쇠·물·흙은 다섯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지연님이 유독 "환경에 떠밀려 왔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면 근거 없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SAMPLE

한 줄 결론

태어난 달의 땅 글자에 공망이 들었습니다.

연주 · 뿌리 · 조상과 초년

辛未

정재 · 상관 · 쇠

지장간 丁 乙 己

태어난 해 — 집안의 기운과 첫 스무 해

월주 · 줄기 · 부모와 사회

丙申

비견 · 편재 · 병 공망

지장간 戊 壬 庚

태어난 달 — 격국이 서고 직업운이 흐르는 자리

일주 · 꽃 · 나와 배우자

丙子

본원 · 정관 · 태

지장간 壬 癸

태어난 날 — 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인연

시주 · 열매 · 자식과 말년

乙未

정인 · 상관 · 쇠

지장간 丁 乙 己

태어난 시 — 끝맺음과 다음 세대

견본

전문 풀이 — 네 기둥은 뿌리·줄기·꽃·열매입니다. 글자 색은 오행, 아래 줄은 십성과 십이운성 — 각 기둥이 삶의 어느 마디를 맡는지입니다. 배지 「공망(空亡)」은 그 자리의 기운이 비어, 세속적 성취보다 정신·예술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SAMPLE

한 줄 결론

나무와 불 기운을 채우면 더 좋아집니다.

혼자 힘으로 밀어붙이기엔 약한 사주라 아래 두 기운이 처방입니다. 초록색과 붉은색, 식물과 햇빛, 아침과 한낮 활동이 이 사주를 돕습니다.



■ 붉은 칸 =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운 → 이 두 가지를 채우면 좋습니다

전문 풀이 — 일간 丙(火) 신약 · 음양 양4·음4 · 억부법 기준 용신(用神) 木·火, 기신(忌神) 土·金·水. 오행 상생 순환도는 부록 B에 있습니다.

SAMPLE

도해 三 · 지장간 구조 — 여덟 글자의 속

한 줄 결론

겉에 드러난 다섯 기운이 속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시주	일주	월주	연주
천간	乙	丙	丙	辛
지지	未	子	申	未
여기(餘氣)	丁 겁재	壬 편관	戊 식신	丁 겁재
중기(中氣)	乙 정인	·	壬 편관	乙 정인
정기(正氣)	己 상관	癸 정관	庚 편재	己 상관

전문 풀이 — 위 두 줄이 겉으로 드러난 여덟 글자, 아래 세 층이 지지 속에 숨어 작용하는 지장간입니다. 색은 각 글자의 오행입니다.

SAMPLE

도해 四 · 십이운성 — 기운의 물결



십이운성은 일간이 각 자리에서 갖는 기운의 세기입니다. 장생에서 태어나 제왕에서 정점을 찍고 절에서 비워지는 순환이며, 붉은 점이 이 명식의 네 기둥이 앉은 자리입니다 — 연주 쇠 · 월주 병 · 일주 태 · 시주 쇠.

네 자리 가운데 기운이 가장 센 쪽은 **뿌리·집안(연주) 쇠 · 말년·자식(시주) 쇠**, 가장 약한 쪽은 **배우자 자리(일주) 태**입니다. 배우자 자리인 일지가 **태**로 열두 단계 가운데 아래쪽입니다. 배우자 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에 따라 채워지기도 내어주기도 하는 자리**라, 관계가 무르익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뿌리·집안(연주)에서 말년·자식(시주)까지의 세기 차가 크지 않아, 한쪽으로 쏠리기보다 **고르게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SAMPLE

한 줄 결론

타고난 무늬가 네 가지 잡힙니다.

도화살

■■□

매력과 인기, 예술적 끼, 이성에게 호감받는 기운

화개살

■■■

예술·종교·철학·학문적 재능, 고독을 즐기는 깊이

문창귀인(文昌)

■■□

글·학문·시험에 강한 총명함 — 배우고 표현하는 일에서 빛남

원진살(怨嗔)

■■□

가까운 사이일수록 생기는 미묘한 애증 — 거리 조절이 관계의 열쇠

견본

참고 — 삼재

巳午未 해에 드는, 열두 해마다 돌아오는 세 해의 변동기입니다. 좋고 나쁨은 그해 판정을 먼저 보시고, 세 해 동안 큰 계약·이사만 한 번 더 살펴 두세요.

전문 풀이 — 신살은 사주 글자들이 만나 생기는 기운의 결입니다. 칸이 많을수록 이 사주에서 세게 작동합니다. 좋고 나쁨의 낙인이 아니라, 쓰는 법을 알면 재능이 되는 무늬입니다.

SAMPLE

第 二 章

성격과 기질

SAMPLE

제2장 · 성격과 기질

내가 왜 이럴까 싶은 순간이 있으시죠?

머릿속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입이 그걸 못 따라가서 답답했던 적, 혹은 반대로 참았어야 할 자리에서 기어이 한마디를 보태고 돌아와 이불을 걷어찬 적 — 둘 다 있으실 겁니다. 서지연님은 생각이 빠르고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들어오면 분석보다 직감이 먼저 답을 내고, 그 답이 대체로 맞습니다. 문제는 맞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틀린 사람을 지켜보는 일이 유독 괴롭다는 것입니다.

강점은 판단 속도입니다. 남들이 자료를 모으는 동안 방향을 잡아 버립니다. 약점은 그 판단을 설명하는 과정을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자명한 일이 상대에게는 비약으로 보여서, 능력보다 태도로 평가받은 경험이 쌓였을 것입니다.

SAMPLE

사람은 모이는데, 깊은 사이는 몇 안 되시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호감을 사는 데는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분위기를 돌리는 힘이 있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긴장이 적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을 다 보여 준 사람은 평생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끄는 힘과 사람을 들이는 힘이 서지연님 안에서는 따로 놉니다.

어디선가 도화살이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엉뚱한 말입니다. 사람을 끄는 기운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게 이성 문제로 새는 기운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 서는 일에서 성과가 되는 기운**입니다. 손님을 상대하거나, 설명하거나, 무언가를 대표해 내보내는 자리에서 서지연님은 실제보다 더 커 보입니다. 이 기운을 사생활이 아니라 일 쪽으로 돌려놓은 사람은 그걸로 먹고삽니다.

SAMPLE

혼자 있는 시간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시죠?

사람 많은 자리에서 잘 웃고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급격히 꺼지는 느낌, 그래서 약속을 잡아 놓고도 당일에 취소하고 싶어지는 마음. 이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서지연님 안에는 혼자 있어야 채워지는 영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책·음악·글·종교·수집 같은, 돈이 안 되는데도 놓지 못하는 분야가 하나쯤 있으실 것입니다. 그게 취미가 아니라 서지연님의 충전기입니다. 그 시간을 죄책감 없이 일정에 넣는 것만으로 사람 상대하는 일의 질이 올라갑니다.

SAMPLE

배워서 정리해 내놓는 일에서 유독 평가가 좋으셨죠?

시험, 보고서, 기획안, 강의 자료처럼 **배운 것을 자기 말로 재구성해서 내놓는 일**에서 서지연님은 노력 대비 결과가 좋습니다. 반면 몸으로 밀어붙이거나 오래 버티는 쪽에서는 투입한 만큼이 안 나옵니다. 같은 노력을 글과 말로 남기는 일에 쓰면 두 배가 되고, 체력으로 버티는 일에 쓰면 절반이 됩니다. 이건 성향이 아니라 서지연님의 실제 효율 구조입니다. 그러니 직업을 고를 때도, 취미를 고를 때도 "이 일은 내 머리에 쌓이는 일인가"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SAMPLE

가까워질수록 서운함이 쌓이시죠?

남은 잘 챙기는데 정작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이 섭니다. 가족, 오래된 친구, 연인처럼 거리를 좁힌 상대일수록 사소한 말에 크게 다치고, 다친 걸 말하지 않고 쌓아 두다가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서지연님의 애정 방식에는 거리 조절이라는 숙제가 붙어 있습니다. 멀면 그립고 붙으면 거슬리는 구조라, 관계를 끊어 해결하려 들면 같은 일이 다음 사람에게서 반복됩니다. 해법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간격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매일 붙어 있기보다 주에 한 번 길게 보는 쪽이 이 사주에는 훨씬 오래갑니다.

왜 그런가 — 사주 근거

여덟 글자 중 가장 두드러지는 갈래는 **식상**입니다. 태어난 해와 태어난 시각의 지지 미(未)에 상관이 둘 들어 있습니다. 상관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SAMPLE

가진 것을 바깥으로 꺼내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기질입니다. 반면 규칙과 체면을 지키려는 기질인 정관은 태어난 날의 지지 자(子) 하나뿐이고, 그나마 상관이 양쪽에서 자(子)를 건드리는 모양(자미 해)입니다. 말이 앞서고 규율이 뒤따르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편이 되는 비겁은 태어난 달의 하늘 글자 병(丙) 하나, 재물 갈래는 해의 정재 신(辛)과 달의 편재 신(申) 둘, 배우고 받아들이는 인성은 시각의 정인 을(乙) 하나입니다. 벌릴 것은 둘인데 들 사람은 하나인 셈입니다.

신살은 넷이 선명합니다. 사람을 끄는 **도화살**(일지 자), 혼자의 깊이를 만드는 **화개살**(미), 글과 학문에서 빛나는 **문창귀인**(월지 신),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증이 생기는 **원진살**(자미)입니다. 문창귀인이 하필

SAMPLE

태어난 달 자리에 놓인 것이 배워서 내놓는 일에 강한 이유이고, 도화와 원진이 같은 자(子) 자리에서 겹치는 것이 "밖에서는 인기, 안에서는 마찰"이라는 모양을 만듭니다.

견본

SAMPLE

도해 六 · 십성 분포

한 줄 결론

표현하고 만드는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전문 풀이 — 겉으로 드러난 일곱 글자(일간 자신은 빼고 셉니다)를 십성군별로 나눠 칸 개수로 나타냅니다. 부록 B와 같은 기준이라 숫자가 그대로 같습니다. 지장간은 지지 속에 숨어 실제로 작용하는 천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곱 자리는 비겁 1·식상 2·재성 2·관성 1·인성 1이고, 지지 속 지장간을 따로 세면 비겁 2·식상 3·재성 1·관성 3·인성 2입니다.

SAMPLE

第 三 章

관상 — 얼굴이 말하는 것

SAMPLE

제3장 · 관상 — 얼굴이 말하는 것

관상은 판결문이 아닙니다. 타고난 뼈대 위에, 살아오며 지은 표정과 견뎌 낸 시간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바뀝니다. 지금부터 쓰는 것은 서지연님의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서지연님이 쌓아 온 것의 요약입니다.

전체 형상

얼굴 전체의 폭은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 곧 품을 넓게 벌리는 쪽인지 좁혀 쓰는 쪽인지를 보는 자리입니다. 서지연님의 얼굴은 둥글고 아래쪽이 넉넉한 형인데, 그에 비해 폭은 뚜렷이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번잡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모여 보입니다. 이런 얼굴은 많은 사람을 동시에 상대하기보다 소수와 깊게 가는 쪽에서 힘이 납니다 — 열 명을 알고 지내는 것보다 세 명과 십 년을 가는 쪽이 서지연님에게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SAMPLE

다만 이마와 코와 턱, 세 구간의 배분을 보면 한쪽이 넉넉하게 실려 있습니다. 타고난 자리입니다. 인생의 힘이 모든 시기에 고르게 퍼지는 대신 넉넉한 쪽의 시기에 몰려 실린다는 뜻이고, 서지연님의 경우 그 무게가 얼굴 아래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기에 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손에 덜 잡히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일을 몰아서 하는 습관이 생긴 것도 이 배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마

이마는 생각의 폭과 배우는 힘, 그리고 열다섯에서 서른 사이 윗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자리입니다. 앞서 본 좁은 폭의 인상과 달리, 서지연님의 이마는 조금 넓은 쪽입니다. 모여 있는 얼굴에 위쪽만 트여 있는 셈이라, 사람에게는 품을 좁게 쓰면서 생각에는 품을 넓게 쓰는 모양이 됩니다. 실제로 혼자 읽고 혼자 정리해서 결론을 내는 일에 강하고,

SAMPLE

그 결론을 들고 윗사람 앞에 섰을 때 설명이 짧아지는 쪽입니다. 태어난 날의 주인공 글자가 태양인 사람에게 이마가 트여 있다는 건 받아들인 것을 금세 자기 빛으로 바꿔 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운 것이 오래 묵지 않고 바로 쓰이는 얼굴이라, 지금처럼 힘이 되는 기운이 때를 기다리는 시기에는 이 자리가 서지연님의 밑천 노릇을 합니다. 배워 두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이마를 놀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미간

미간은 마음의 너그러움과, 걱정을 어디에 담아 두는가를 보는 자리입니다. 조금 넓은 이마 바로 아래에서 흐름이 한 번 조여듭니다 — 서지연님의 미간은 제법 좁습니다. 타고난 자리이고, 습관이 만든 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좁은 미간은 생각이 한 점으로 모이는 얼굴이라 깊이가 있습니다. 한 번 잡은 일은 끝을 보고, 남들이 적당히 덮고

SAMPLE

지나가는 지점에서 혼자 남아 끝까지 파고듭니다. 다만 같은 힘이 안쪽으로 돌면 걱정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미간에 쌓아 둡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면 눈 사이가 먼저 뻐근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그날 걱정을 세 줄로 적어 두는 습관 하나가 이 자리의 부담을 꽤 덜어 줍니다. 쓰면 머리 밖으로 나가고, 나간 것은 미간에 고이지 않습니다.

눈과 눈썹

눈매는 사람을 맞는 방식을 보는 자리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 두는 얼굴이 있고, 문틈으로 먼저 살피는 얼굴이 있는데 서지연님은 뒤쪽입니다. 눈매가 뚜렷이 가는 편이라 눈에 힘이 모이고, 그만큼 관찰이 깊습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읽어 내면서도 정작 본인 속은 쉽게 내보이지 않는 얼굴이라, 처음 만난 사람은 서지연님을 차분하다고 느끼고 오래 본 사람은 속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앞

SAMPLE

절에서 본 좁은 미간의 집요함이 이 눈에서 한 번 더 이어집니다 — 좁게 모아 깊이 보고, 본 것을 오래 담아 둡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잘 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의심이 나중에 맞아떨어진 경험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눈썹과 눈 사이는 감정이 얼굴로 올라오는 속도를 보는 자리인데, 이 간격이 제법 가깝습니다. 속을 안 보이는 눈매와 감정이 빨리 올라오는 간격이 한 얼굴에 같이 있다는 것은, 숨기려 해도 첫 반응은 표정에 먼저 나온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눈썹 아래가 먼저 움직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걸 읽고, 서지연님은 읽혔다는 걸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간격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회의나 상담처럼 표정이 곧 메시지가 되는 자리라면, 첫 반응이 지나간 뒤 한 박자 쉬고 말을 꺼내는 습관이 이 얼굴에는 꽤 유용합니다.

SAMPLE

코

눈썹에서 코끝까지는 일하고 버는 한창때, 서른하나에서 쉰 사이를 보는 구간입니다. 서지연님은 콧대가 시작되는 자리가 낮은 편입니다. 출발선이 낮다는 것은 초반에 기대고 올라설 발판이 적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한창때의 앞쪽을 스스로 깎아 만들어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는 눈으로 사람을 살피며 혼자 판단해 온 습관도 여기서 왔습니다 — 물어볼 데가 많지 않으면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이어지는 콧대는 방향을 지키는 힘을 보는 줄기인데, 특별히 휘거나 꺾이지 않고 제 길을 유지합니다. 한 번 정한 방향을 중간에 갈아타지 않는 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의 중심은 코끝입니다. 코끝과 콧방울은 들어온 것을 담고 지키는 자리인데, 넉넉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굴 가운데가 단단해서, 크게 버는 힘보다

SAMPLE

들어온 것을 흘리지 않고 담아 두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벌려 쓰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에게 이런 코끝이 함께 있는 것은 큰 다행입니다. 쓰는 쪽으로 기우는 마음을, 담는 쪽의 얼굴이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용도별로 나눠 두는 식의 단순한 장치만 있어도 이 코끝은 제 몫을 다 합니다.

입·턱

코 아래부터 턱까지는 쌓은 것을 지키는 후반, 쉰 이후를 보는 자리입니다. 서지연님은 이 아래쪽이 눈에 띄게 넉넉합니다. 앞서 세 구간의 배분에서 한쪽에 힘이 실려 있다고 한 그 넉넉한 쪽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모이고 터전이 남는 얼굴이라, 지금 손에 덜 잡히는 것들이 뒤로 갈수록 모양을 갖춥니다. 입은 말과 먹을 것이 드나드는 문이자 담는 그릇을 보는 자리인데, 서지연님의 입은 큰 편입니다. 옛 상서에서는 입이 커서 주먹이 들어갈

SAMPLE

만하면 담는 그릇이 크다(口大容拳)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새지 않고,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도 얼굴에 티를 내지 않아 사람들이 서지연님에게 속을 털어놓습니다. 입꼬리도 올라가 있어, 가만히 있어도 표정이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세월이 표정에 그렇게 쌓인 얼굴이라,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두터워집니다.

다만 윗입술이 아랫입술에 비해 제법 얇습니다. 타고난 자리입니다. 마음이 말이 되어 나오는 속도가 느린 쪽이라, 말이 무겁습니다.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늦게 나오는 것인데 상대는 그 차이를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하려던 말 끝에 한 문장만 더 보태 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평생의 오해 절반을 줄입니다. 인중도 짧은 편인데, 긴 호흡과 참을성을 보는 자리라 느리게 버티는

SAMPLE

쪽보다는 순간 판단으로 치고 나가는 쪽에 강합니다. 오래 끌리는 일에서 유독 지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마감이 눈앞에 있을 때 집중력이 폭발하는 이유도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얼굴과 사주를 함께 보면

얼굴형과 사주 일간은 서로 부딪히는 기운입니다. 둥글고 아래가 넉넉한 형상은 물의 결에 가깝고, 서지연님의 타고난 주인공 글자는 태양입니다. 볕과 물이 한 얼굴에 같이 있으니, 안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속도와 겉으로 둥글게 받아 내는 태도가 늘 한 박자 어긋납니다. 급한 마음을 온화한 표정이 덮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간 자리가 강하게 나타났던 31~34세 무렵은, 실제 30세(2021년) 사주 판정과 서로 겹칩니다. 서른 전후는 서지연님에게 큰 흐름이 한 번 갈아타는 때였습니다. 스물하나부터 서른까지 이어진 10년이 매우 주의로

SAMPLE

끝나고, 서른하나부터 지금의 10년으로 넘어가던 바로 그 이음새였기 때문입니다. 얼굴에서 걱정을 담아 두는 자리인 미간이 하필 그 나이대를 맡고 있다는 것은, 그 무렵 서지연님이 겪은 일이 밖으로 터지기보다 안으로 쌓이는 방식으로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때 결정한 것들, 그때 참은 것들이 지금의 눈빛과 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서지연님이 느끼는 답답함의 뿌리가 지금이 아니라 그 무렵에 심겼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꾸실 것

이 얼굴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는 눈매입니다. 가늘게 모인 눈이 깊이 보고, 본 것을 함부로 흘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보다 사람을 정확히 읽어야 하는 일에서 이 눈은 값이 매겨집니다 — 상담, 심사, 선별, 교육처럼 보는 눈이 곧 실력이 되는 자리에 서지연님을 놓으십시오.

SAMPLE

가꿀수록 달라지는 자리는 이마와 코와 턱의 균형입니다. 타고나기를 아래쪽에 힘이 실린 얼굴이라 앞쪽 시기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이건 고칠 대상이 아니라 알고 쓸 대상입니다. 지금처럼 힘이 덜 실린 때에는 크게 벌이는 대신 뒤에 쓸 것을 쌓아 두고, 아래쪽 시기가 오면 그때 벌리는 것 — 그 순서만 지켜도 이 배분은 흠이 아니라 설계도가 됩니다.

마음을 전할 일이 있을 때 한 문장만 더 보태는 연습도 함께 가져가십시오. 말이 무거운 사람의 한 문장은 가벼운 사람의 열 마디보다 멀리 갑니다. 사진은 관상을 본 뒤 바로 지웁니다. 다음에 다른 사진을 보내셔도 지난번 관상 풀이 기록과 맞춰 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몇 해 뒤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 그 사이에 서지연님이 지은 표정만큼, 얼굴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SAMPLE

얼굴이 말하는 것 — 한눈에 보기

한 줄 결론

서지연님의 얼굴은 둥글고 아래쪽이 넉넉한 형인데, 그에 비해 폭은 뚜렷이 좁은 편입니다.

이마	관록궁(官祿宮)	이마가 조금 넓습니다.
미간	명궁(命宮)	미간이 뚜렷이 좁습니다.
눈썹	형제궁(兄弟宮)	눈썹이 조금 깁니다.
눈	감찰관(監察官)	눈매가 조금 짧습니다.
코	재백궁(財帛宮)	코끝이 뚜렷이 넉넉합니다.
입	출납관(出納官)	입이 뚜렷이 큽니다.
턱	지각(地閣)	코 아래에서 턱까지가 뚜렷이 넉넉합니다.

전문 풀이 — 오른쪽 칸은 본문 제3장과 같은 측정 결과를 부위별로 한 줄로 간추린 것이고, 새로 지어낸 해석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본문 제3장에 이어집니다.

SAMPLE

第 四 章

사주와 관상이 함께 가리키는 것

SAMPLE

제4장 · 사주와 관상이 함께 가리키는 것

사주로 읽은 기질과 얼굴로 읽은 인상을 나란히 놓으면, 세 군데에서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첫째, 사람을 쓰는 방식입니다. 서지연님은 밖에서 사람을 끄는 힘이 분명히 있는데 정작 깊이 들이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얼굴에서도 폭이 좁아 소수와 깊게 가는 쪽으로 모여 있고, 입과 입꼬리는 사람이 모이는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많이 모이되 깊이 들이지는 않는다 — 두 자료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인맥을 넓히라는 조언은 서지연님에게 맞지 않습니다. 넓히는 건 이미 저절로 됩니다. 고르는 쪽에 힘을 쓰십시오.

SAMPLE

둘째, 끝을 보는 집요함입니다. 사주에서는 한 번 잡은 방향을 바꾸지 않는 성질로 나오고, 얼굴에서는 좁은 미간과 가는 눈매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지연님이 중간에 그만둔 일은 대개 흥미를 잃어서가 아니라 체력이 먼저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의지를 의심하지 말고 일정의 길이를 의심하십시오.

셋째, 힘이 뒤쪽에 실린다는 점입니다. 사주에서는 힘이 되는 나무 기운이 인생의 끝자리에 하나 놓여 있어 때가 와야 열리는 구조로 나오고, 얼굴에서는 코 아래부터 턱까지가 넉넉해 후반에 사람과 터전이 남는 쪽으로 나옵니다. 지금 손에 잘 안 잡히는 것이 서지연님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긋나는 곳도 있습니다. 사주는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는 쪽인데, 얼굴은 말이 늦게 나오는 쪽입니다. 둘 다 타고난 것이라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만든 게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은 말이 앞서는데 타고난 얼굴은 말이 늦게

SAMPLE

나오는 자리 — 이 둘이 부딪히는 지점이 곧 서지연님이 살아오며 가장 자주 마찰이 났을 자리입니다. 할 말이 안에서는 다 만들어졌는데 입 밖으로는 절반만 나가고, 나머지 절반은 표정으로 먼저 새어 나갑니다. 상대는 표정을 보고 반응하고, 서지연님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받습니다.

또 하나, 사주는 길게 끌고 가는 성질이 있는데 얼굴의 인중은 짧은 호흡 쪽입니다. 방향은 오래 지키면서 호흡은 짧게 가는 사람이라, 긴 일을 짧은 단위로 쪼개 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성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으로 얼굴형과 타고난 글자가 서로 부딪히는 기운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짚습니다. 사주 쪽 근거로 보면 서지연님의 주인공 글자는 태양인데 발밑 자리에 찬물이 놓여 있어,

SAMPLE

안에서 달아오르고 아래에서 식히는 구조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얼굴의 둥근 형상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밖에서 보기엔 온화한데 안에서는 늘 뜨겁습니다. 지치는 이유도, 오래가는 이유도 다 여기서 나옵니다.

왜 그런가 — 사주 근거

서지연님의 일간은 불에 속하고, 체질 단서도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직관이 먼저 움직이는 쪽으로 나옵니다. 둥근 얼굴형이 가리키는 결은 물에 가까워, 불과 물은 서로 부딪히는 관계(상극)입니다. 다만 이 사주는 한난조습 균형이 양호하다는 판정이라 그 부딪힘이 파괴로 가지 않고 조절로 작동합니다. 결핍 오행도 없어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지 않습니다 — 그래서 '충돌'이 아니라 '온도 차'로 읽습니다.

SAMPLE

第 五 章

반복돼 온 패턴

SAMPLE

제5장 · 반복돼 온 패턴

능력이 아니라 태도로 평가받은 일

조직의 윗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부딪혔을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매번 비슷한 모양으로였을 것입니다. 일은 분명히 했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는데, 돌아온 말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나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쪽이었을 것입니다. 회의에서 틀린 걸 틀렸다고 말했다가 분위기를 깨 버린 날, 혹은 상사의 결정을 먼저 수정해 가져갔다가 고맙다는 말 대신 서운함을 들은 날이 기억에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반복됐다면 서지연님이 무례해서가 아닙니다. 판단이 먼저 끝나 버리는 사람이 설명의 단계를 건너뛰었을 뿐입니다. 말을 참는 건 해법이 아닙니다 — 참으면 표정으로 새고, 새면 더 오해받습니다. 대신 **언제·누구에게**

SAMPLE

할지 자리를 고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같은 지적도 회의 자리에서 공개로 하면 반발이 되고, 끝난 뒤 따로 한 사람에게 하면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만 바꿔도 서지연님의 평가가 능력 쪽으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견본

SAMPLE

벌이는 되는데 남지 않은 돈

돈이 안 들어온 적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해 보면 늘 비슷하게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큰 손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쓰고 기회에 걸고 배우는 데 넣느라 조금씩 빠져나간 결과였을 것입니다. 남이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 거절을 못 하고, 가능성이 보이는 일에는 먼저 돈을 얹어 두고, 정산은 뒤로 미루는 — 그 세 가지가 반복됐다면 그건 돈 관리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리는 감각을 타고난 사람에게 들 힘이 적게 주어졌을 때 생기는 구조적 결과입니다. 그러니 의지로 아끼려 들지 마십시오. 서지연님에게는 절약보다 **차단**이 맞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즉시 손 닿지 않는 곳으로 일정 비율을 떼어 놓고,

SAMPLE

사람에게 쓰는 돈은 월 한도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들어온 것을 담아 두는 힘 자체는 서지연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작동하려면 결정을 그때그때 하지 않고 미리 정해 둔 규칙에 맡겨야 합니다.

견본

SAMPLE

가까운 사람에게만 남던 상처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는 유독 날카로웠던 일, 그리고 그 뒤에 혼자 자책했던 일이 반복됐을 것입니다. 거리가 좁혀질수록 상대의 사소한 말이 크게 박히고, 박힌 걸 말하지 않은 채로 몇 달을 끌다가 한꺼번에 터뜨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터뜨린 뒤에는 늘 "내가 왜 그랬지"가 남습니다.

이건 서지연님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애정의 사거리가 짧지 않은 사람에게 생기는 일입니다. 멀리서 비출 때 가장 따뜻한 볕이 코앞에서는 뜨겁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바꾸지 말고 간격을 정하십시오. 매일 붙어서 조금씩 상하는 관계보다, 주에 한 번 제대로 보는 관계가 서지연님에게는 훨씬 오래갑니다. 그리고 서운한 일은 쌓기 전에 사흘 안에 한 문장으로 말하십시오. 쌓인 뒤에 한 번에 말하면 그건 설명이 아니라 폭발이 됩니다.

SAMPLE

지나온 두 번의 10년

스물하나부터 서른까지의 10년과 서른하나부터 지금까지의 10년은 둘 다 판정이 매우 주의로 나옵니다. 사건을 하나하나 맞히려는 게 아니라 기운의 성질만 말씀드리면, 두 10년 모두 서지연님에게 부담이 되는 기운이 겹쳐 들어온 때였습니다. 노력의 효율이 낮은 시기였다는 뜻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남보다 설명이 더 필요했고, 같은 성과를 내도 인정이 늦게 왔다면 그건 이 흐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십시오. 조직이 서지연님을 품지 못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맞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았다면 그건 헤픈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들 사람 없이 혼자 벌려 온 구조

SAMPLE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부딪혔다면 그건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이 너무 가까이 놓여서입니다. 서지연님은 지금까지 결함을 안고 살아온 게 아니라, 설계를 모르는 채로 설계대로 살아온 것뿐입니다.

왜 그런가 — 사주 근거

첫째 패턴은 상관 둘(년지 미·시지 미)에 비해 정관이 일지 자 하나뿐이고, 그 정관이 양쪽 상관에게 눌리는 모양에서 나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는 기질은 둘인데 규칙과 체면을 지키려는 기질은 하나입니다.

둘째 패턴은 편재격이면서 신약이라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재물 갈래가 둘(년간 정재 신, 월지 편재 신)인데 자기편이 되는 비겁은 월간 병 하나뿐입니다. 벌릴 틀은 크고 들 힘은 작은 전형적인 모양이며, 식상이 재를 생하는 통로가 열려 있어 돈이 들어오기는 잘 들어옵니다.

SAMPLE

셋째 패턴은 원진살(자미)입니다. 일지와 년지·시지가 맞물리는 자리라 가까운 관계에 그대로 작용합니다. 도화살이 같은 자 자리에 겹쳐 있어 밖에서 끄는 힘과 안에서 부딪히는 힘이 한 글자에서 함께 나옵니다.

견본

SAMPLE

第 六 章

지금 이 자리

SAMPLE

제6장 · 지금 이 자리

언제부터 풀리나 싶으시죠?

지금은 아직 푸는 때가 아니라 고르는 때예요. 서지연님이 지난 몇 해 유난히 애쓴 것에 비해 손에 쥔 게 적었다면, 게으르셨던 게 아니라 흐름이 그런 때였어요. 2032년에 10년의 흐름이 한 번 갈아타고,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건 2034년부터예요.

서른하나가 되던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10년은 판정이 매우 주의입니다. 이 10년 안에 좋은 해가 하나 끼어 있었는데, 지난 2025년이 그 해였습니다. 그해에 뭔가 결심하거나 방향을 틀었거나, 적어도 한숨 돌릴 일이 있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올해 2026년은 판정이 **보통**입니다. 올해 하늘 글자가 병화(丙火)로, 지지가 오(午)로 들어와 둘 다 서지연님에게 힘이 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도 판정이 좋음까지 올라가지

SAMPLE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10년이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10년 운의 두 글자가 모두 서지연님에게 부담이 되는 기운이라, 좋은 해의 글자가 들어와도 절반이 상쇄됩니다. 게다가 오(午)가 태어난 해와 시각의 미(未)와 묶이면서 흙 기운으로 바뀌고, 태어난 날의 자(子)와는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좋은 재료가 들어왔는데 중간에서 성질이 바뀌어 버린 셈입니다. 올해 유독 "될 듯 될 듯 안 된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삼재**의 세 해 가운데 둘째 해이기도 합니다. 삼재는 2025·2026·2027년에 걸쳐 있습니다 — 미리 알면 대비가 되는 변동기이지 재앙의 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지연님의 사주에는 태어날 때부터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애써 쌓아도 쌓은 만큼이 그대로 남지 않고, 남 보기에 그럴듯한 모양으로는 잘 정리되지 않는 성질입니다. 이게 유독 **직업과 사회적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연님은

SAMPLE

지금껏 "이 일이 내 일이다" 하고 한 자리에 딱 앉아 본 느낌이 적었을 것입니다. 명함이 바뀌거나, 하는 일은 같은데 소속이 바뀌거나, 남들에게 직업을 설명하기 애매한 상태가 반복됐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밀려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남이 알아보는 자리로 인정받는 길보다, 쌓인 결과물로 증명되는 길이 이 사주에는 훨씬 잘 맞습니다.

견본

SAMPLE

올해 남은 달과 내년을 이렇게 지나가십시오

올해 남은 달은 셋 다 ▼ **주의**입니다. 2026년 10월·11월·12월이 그렇습니다. 이 기간에 뚜렷한 길월은 없으니,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벌리는 쪽이 아니라 정리하고 준비하는 쪽에 쓰십시오. 이어지는 2027년 1월은 ▼▼ **매우 주의**입니다. 큰 결정과 큰 지출은 이 달을 피하십시오.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목돈을 옮기는 일은 이 달 밖으로 미루는 것만으로 사고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내년에 쓸 수 있는 달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7년 3월이 ○ **무난**, 5월이 ◎ **좋음**, 6월이 ○ **무난**입니다. 특히 5월은 힘이 되는 기운이 하늘과 땅에 함께 들어오는 달이라, 중요한 발표·면접·계약·이사처럼 한 번에 결판나는 일은 이 달로 당겨 잡으십시오. 반면 2027년 8월은 ▼▼ **매우 주의**, 9월은 ▼ **주의**입니다. 여름 끝자락에는 새 일을 벌이지 마십시오.

SAMPLE

멈추라는 조짐

서지연님에게 부담이 되는 기운은 쇠·물·흙입니다. 그 기운이 올라오면 생활에 이런 조짐이 먼저 보입니다. 첫째,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말에 바로 받아치고 싶어지고, 실제로 받아친 뒤 후회가 남습니다. 이런 날이 한 주에 두세 번 겹치면 그 주에는 중요한 대화를 잡지 마십시오. 둘째, **생각이 고입니다.** 밤에 잠이 얕아지고, 결론 없는 생각을 자정 넘어까지 붙잡고 있게 됩니다. 이때 내린 결정은 대체로 다음 날 아침에 바꾸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밤 열한 시 이후에는 어떤 결정도 확정하지 않는다는 규칙 하나를 두십시오.

SAMPLE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새로 벌리는 대신 쌓는 시기**로 쓰십시오. 자격, 기록, 포트폴리오, 사람 — 2034년에 쓸 것을 지금 모아 두는 겁니다. 흐름이 좋아질 때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흐름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는 사람만 붙잡습니다.

왜 그런가 — 사주 근거

원국에서 공망을 맞은 자리는 **월주**입니다. 공망 지지는 신(申)·유(酉)인데, 서지연님의 월지가 바로 신(申)입니다. 월주는 격국의 중심 자리이자 직업·사회적 자리를 보는 곳이라, 이 자리가 비었다는 것은 직업적 위치가 쉽게 안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이 사주의 격이 편재격인데 그 격을 세우는 글자인 편재 신(申)이 바로 공망에 걸려 있습니다. 벌려서 버는 길로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림 자체가

SAMPLE

허하다고 읽습니다 —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성취가 남의 눈에 보이는 자리로는 잘 정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세부터 10년(1992~2001, 정유) 역시 공망 대운이었습니다. 유년기에 해당하므로 세속적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에 받은 것이 눈에 보이는 기반보다 정서·감각 쪽으로 쌓였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화개살과 문창귀인이 함께 작동하는 이 사주에서, 그 시기에 생긴 혼자만의 세계가 지금 서지연님의 밑천입니다.

현재 10년(2022~2031, 경자)은 천간 경(庚)이 쇠, 지지 자(子)가 물로 둘 다 기신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세간 병과 세지 오가 모두 용신이지만, 오미(午未) 육합이 흙으로 변해 기신이 되고 오자(午子) 충이 일지와 대운지를 동시에 건드려

SAMPLE

판정이 보통에 머뭅니다.

견본

SAMPLE

第 七 章

앞으로 12년, 그리고 그 뒤

SAMPLE

제7장 · 앞으로 12년, 그리고 그 뒤

먼저 ▼의 뜻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앞으로 12년 안에 주의로 표시된 해가 2031·2032·2033년 세 해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 표시를 불행의 예고로 읽지 마십시오. 서지연님에게 힘이 되는 기운은 나무와 불인데 그 세 해에는 쇠와 물이 겹쳐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볕이 약해지는 철이 오는 것이지, 볕이 꺼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해에 서지연님이 할 일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줄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해가 있어야 바로 다음이 옵니다.

SAMPLE

2026~2030년 — 다섯 해, 쌓는 기간

올해부터 2030년까지는 다섯 해 모두 **보통**입니다. 특별히 열리지도 막히지도 않는 때라 성패가 서지연님의 선택에 가장 많이 좌우되는 구간입니다. 이 다섯 해를 "아무 일도 없던 시기"로 흘려보내면, 2034년이 왔을 때 쓸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다섯 해를 준비 기간으로 쓰면 2034년에 쓸 카드가 손에 쥐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과 기록입니다. 서지연님은 배운 것을 글과 말로 정리해 내놓는 일에서 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니, 지금 하는 일을 결과물 형태로 쌓아 두십시오. 수업 자료든, 사례집이든, 작업물이든 — 모양이 남는 형태여야 합니다.

SAMPLE

2031~2033년 — 세 해, 숨 고르는 때

2031년 ▼ **주의**, 2032년 ▼ **주의**, 2033년 ▼ **주의**입니다. 2031년은 하늘 글자가 신금(辛金), 2032년은 임수(壬水), 2033년은 계수(癸水)로 들어와 서지연님에게 부담이 되는 기운이 연이어 옵니다. 이 세 해에는 이것만 지키십시오. **빚을 늘리지 말 것, 보증을 서지 말 것, 사람 때문에 돈을 쓰지 말 것.** 특히 2032년에는 10년 운 자체가 한 번 갈아타므로 환경이 먼저 흔들립니다. 소속이 바뀌거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 조급하게 더 큰 판으로 옮기려 하면 그 선택이 2033년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흔들릴 때는 자리를 지키고, 대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험만 하십시오.

SAMPLE

2034·2035·2037년 — 앞으로 12년 중 가장 좋은 해

2034년 ★ **좋음**, 2035년 ★ **좋음**, 2037년 ★ **좋음**입니다. 사이의 2036년은 **보통**입니다. 이 세 해가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2034년은 하늘 글자가 갑목(甲木)에 지지가 인목(寅木)으로 나무 기운이 통째로 들어오고, 2035년은 을목(乙木)과 묘목(卯木)으로 같은 기운이 한 번 더 이어집니다. 2037년은 정화(丁火)와 사화(巳火)로 불 기운이 들어옵니다. 서지연님에게 힘이 되는 기운이 하늘과 땅에 함께 실리는 해들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세 해가 모두 2032년부터의 10년 안에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10년 자체의 판정은 매우 주의인데, 그 안에 좋은 해가 셋이나 겹칩니다. 바탕은 서늘한데 그 위로 볕이 세 번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 해는 **흐름을 믿고 몸을 던지는 해가 아니라, 준비해 둔**

SAMPLE

것을 꺼내 쓰는 해입니다. 2034년에 새로 배우기 시작하면 늦고, 2034년에 그동안 쌓은 것을 내놓으면 맞습니다. 독립이나 자기 이름을 건 일을 생각하신다면 그 출발선은 2034년입니다. 2039년은 다시 ▼ **주의**이니, 2037년까지 벌려 둔 것을 2038년 안에 안정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견본

SAMPLE

2042년부터 —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쉰하나가 되는 2042년부터 10년, 그리고 이어지는 10년까지 — 서지연님의 큰 흐름은 여기서 판정이 **좋음**으로 올라섭니다. 2042·2043·2044년이 연달아 ★ **좋음**으로 시작한다는 것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삼십 년을 통틀어 큰 흐름이 가장 순해지는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서지연님이 겪어 온 네 번의 10년이 전부 주의 쪽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호전이 아니라 체감되는 전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지연님의 인생 설계를 이렇게 권합니다. 2030년까지는 **실력과 결과물을 쌓는 기간**, 2034년부터는 **그것을 내놓고 자기 이름을 세우는 기간**, 2042년부터는 **쌓인 것으로 사는 기간**. 지금 서른다섯에 조급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지연님의 얼굴도 사주도 뒤쪽에

견본

SAMPLE

힘이 실려 있다고 같은 말을 합니다. 다만 뒤에 힘이 실린 사람은 앞에서 버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031~2033년을 어떻게 지나느냐가 2034년 이후의 크기를 정합니다.

견본

SAMPLE

第 八 章

실천 가이드

SAMPLE

제8장 · 실천 가이드

① 때(時) —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출 것인가

서지연님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 다섯 해를 준비에 쓰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 하실 일은 자격·기록·사람을 모으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빚을 내서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 남은 세 달은 ▼ 주의이니 새 계약이나 큰 지출을 이 안에 넣지 마시고, 2027년 1월의 ▼▼ 매우 주의 기간은 아예 비워 두십시오. 움직일 달은 내년에 있습니다. 2027년 3월 ○ 무난, 5월 ◎ 좋음, 6월 ○ 무난 — 이 중 5월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면접·발표·계약·이사는 5월로 당겨 잡으시고, 3월과 6월은 그 준비와 마무리에 쓰십시오. 2027년 8월 ▼▼와 9월 ▼에는 새 일을 벌이지 마십시오. 2028년에도 같은 리듬이 반복됩니다 — 2월 ○ 무난, 3월 ◎ 좋음, 5월 ◎

SAMPLE

좋음이 쓸 수 있는 달이고, 7월 ▼▼·8월 ▼▼·9월 ▼는 비워 두실 달입니다. 큰 결정의 해는 2034년입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움직임은 그해를 위한 적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견본

SAMPLE

② 자리(所) — 공간을 이렇게 바꾸세요

서지연님에게 힘이 되는 기운은 나무와 불이니, 공간에도 그 둘을 들이십시오. 색은 초록과 붉은색입니다. 책상 위에 초록 잎이 넓은 화분을 하나 놓고, 노트나 파일 표지·의자 쿠션 같은 손이 자주 닿는 물건에 붉은 계열을 섞으십시오. 방향은 동쪽과 남쪽입니다. 책상은 가능하면 동쪽을 바라보게 놓으시고, 그게 어려우면 동쪽 창이 보이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집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를 북쪽 구석에 두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소재는 나무와 천연 섬유입니다. 유리와 금속으로 둘러싸인 책상보다 원목 상판이, 차가운 금속 조명보다 따뜻한 색 전구가 맞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장 위에 작은 나무 소품이나 초록 식물을 두어 들어올 때 먼저 눈에 닿게 하시고, 침실에는 금속 장식과 큰 거울을 줄이고 면이나 리넨 침구를 쓰십시오. 자고 일어나는 자리의 소재를 바꾸는 것이 서지연님에게는 가장 체감이 큽니다.

SAMPLE

③ 사람(人) — 운은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서지연님 안에서 가장 센 갈래는 표현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넘치면 관계에서 한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 **상대가 묻지 않은 것까지 고쳐 주려는 태도**입니다. 후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듣기 전에 해법부터 나가고, 가족이 하소연하면 공감 대신 원인 분석을 합니다. 본인은 돕는 것인데 상대는 평가받았다고 느낍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태도를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해법을 꺼내지 않는 것**. 그리고 꺼내기 전에 "들어 볼래, 아니면 그냥 들어 줄까"를 한 번 묻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서지연님의 관계 사고 대부분을 막습니다. 거기에

SAMPLE

하나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간격을 두십시오. 서운한 일은
쌓기 전에 사흘 안에 한 문장으로 말하고, 매일 붙어
있기보다 주에 한 번 제대로 보는 쪽을 택하십시오.
서지연님의 정은 멀리서 비출 때 가장 따뜻합니다.

견본

SAMPLE

④ 몸(身) — 총량을 지키세요

서지연님의 오행은 어느 하나가 비지 않고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모자란 걸 채워 넣어야 하는 사주가 아니라, **가진 총량을 지켜야 하는 사주**입니다. 타고난 기운이 매우 여린 편이기 때문에, 과로 한 번의 회복에 남들의 두 배가 걸립니다. 그러니 "하루 몰아서 하고 이틀 쉬기"는 서지연님에게 최악의 방식입니다. 인중이 짧고 호흡이 짧은 쪽이라 몰아치는 데 강하게 느껴지지만, 그 뒤에 치르는 값이 큽니다.

지킬 것은 셋입니다. 첫째, 수면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자정 전에 눕는 날을 주 다섯 날 이상 만드는 것이 서지연님에게는 어떤 영양제보다 낫습니다. 둘째, 운동은 강도보다 빈도입니다. 주 1회 두 시간보다 주 4회 삼십 분이 맞습니다. 걷기·가벼운 근력 운동처럼 숨이 끝까지 차지 않는 쪽으로 하십시오. 셋째, 몸에서 먼저 신호가 오는

SAMPLE

곳은 순환과 소화 쪽입니다. 손발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날,
그리고 스트레스가 바로 위장으로 가는 날이 겹치면
일정을 줄이라는 신호로 읽으십시오. 특히
2031~2033년과 2039년처럼 부담이 되는 기운이
겹치는 해에는 연초에 건강검진을 한 번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견본

SAMPLE

第 九 章

주제별 상세 풀이

SAMPLE

제9장 · 주제별 상세 풀이

당신이 물어본 것

Q1.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옮길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판정: **지금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옮기는 때는 2034년입니다.**

지금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 서지연님이 싫증이 나서가 아닙니다. 현재의 10년이 매우 주의로, 애쓴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게 적은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자리를 옮기면 대개 같은 문제를 다른 간판 아래에서 다시 만납니다. 환경이 문제였는지 흐름이 문제였는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SAMPLE

그러니 2030년까지는 몸을 옮기지 말고 **일의 내용을 옮기십시오.** 같은 조직 안에서도 서지연님에게 맞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배운 것을 정리해 내놓는 일, 사람을 읽고 골라야 하는 일, 바깥에 설명하는 일 — 이 세 가지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반대로 오래 버티는 단순 반복과 혼자 떠안는 관리 업무는 줄이십시오. 이것만으로 "옮기고 싶다"는 마음의 절반이 가라앉습니다.

다만 2032년에 환경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속이나 역할이 바뀔 수 있는데, 그때 조급하게 더 큰 데로 뛰지 마십시오. 그 해의 선택은 2033년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정식으로 움직일 해는 2034년입니다. 그해에는 나무 기운이 통째로 들어와 서지연님에게 힘이 실리므로, 옮기든 독립하든 그때 꺼내 쓰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 **지금의 일을 결과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자리를 옮길 때 서지연님을 증명하는 건 경력 연수가 아니라 손에 쥔 결과물입니다.

SAMPLE

Q2. 돈이 잘 안 모입니다. 언제쯤 풀리고, 뭘 조심해야 할까요?

판정: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 남는 구조입니다. 흐름이 바뀌는 건 2034년부터이고, 그 전까지는 새는 곳을 막는 쪽이 답입니다.**

서지연님의 사주는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힌 쪽이 아닙니다. 오히려 표현하고 만들어 내는 힘이 그대로 수입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뚫려 있어서, 일한 만큼은 들어옵니다. 문제는 들 힘입니다. 벌릴 틀은 크게 타고났는데 자기편이 되는 기운은 하나뿐이라, 벌리는 족족 그만큼의 비용이 함께 나갑니다.

조심하실 것은 셋입니다. 첫째, **사람에게 나가는 돈.** 거절을 못 해서 나간 돈이 서지연님 지출의 가장 큰 구멍입니다. 월 한도를 숫자로 정해 두고 그 안에서만 쓰십시오. 둘째, **가능성에 미리 거는 돈.** 아직 모양이 없는 일에 먼저 돈을

SAMPLE

넣고 나중에 정산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2031~2033년에는 이 습관이 특히 위험하니 그 세 해에는 새 투자를 아예 금하십시오. 셋째, **빚과 보증.** 같은 세 해에는 서지연님 이름으로 남의 돈을 보증하는 일을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막는 방법은 의지가 아니라 장치입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일정 비율을 손 닿지 않는 곳으로 떼어 놓으십시오. 들어온 것을 담아 두는 힘 자체는 서지연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은 매번 결정할 때가 아니라 미리 정해 둔 규칙에 맡길 때 작동합니다. 그렇게 모아 둔 것이 2034년·2035년·2037년에 종잣돈이 됩니다. 돈만 따로 열리는 해는 없고, 그 세 해에 일과 함께 움직입니다.

SAMPLE

건강

핵심: 채울 것은 없고, 지킬 것만 있습니다. 회복 속도가 느린 몸이니 무너지기 전에 멈추는 게 전부입니다.

서지연님의 오행은 균형이 잡혀 있어 특별히 비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신 타고난 기운의 총량이 매우 여린 편이라, 과로가 누적되면 회복에 남들보다 긴 시간이 듭니다. 체질로 보면 열정이 먼저 움직이는 쪽이라 마음이 몸을 앞질러 가고, 그래서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자주 무시합니다.

조심할 시기는 분명합니다. 2031·2032·2033년, 그리고 2039년에는 부담이 되는 기운이 겹쳐 들어옵니다. 이 해들에는 연초에 검진 일정을 먼저 잡아 두십시오.

SAMPLE

해마다로 보면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그리고 한겨울 1월 전후에 몸이 가장 무겁습니다. 2027년 1월, 2027년 8월, 2028년 1월, 2028년 7~8월처럼 ▼▼ 매우 주의가 찍힌 달에는 일정을 평소의 팔 할로 줄이십시오.

살필 곳은 순환과 소화 쪽입니다. 손발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날이 이어지거나, 스트레스가 바로 위장으로 내려가는 날이 반복되면 그게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진단과 치료는 의료기관의 몫이니 이상이 느껴지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당장 오늘 하실 일은 취침 시각을 하나로 정하는 것입니다. 서지연님에게는 그것이 가장 효과가 큰 처방입니다.

SAMPLE

관계

핵심: 멀리서 비출 때 가장 따뜻한 볕입니다. 거리를 정해 두는 것이 애정의 기술입니다.

배우자복 있냐고 물으신다면,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과 오래 가는 복이지 여러 번 설레는 복은 아니에요. 인연을 만드는 힘은 밖에서 사람을 끄는 데서 오고, 그 인연을 지키는 힘은 거리를 조절하는 데서 와요.

이 사주에서 배우자를 보는 글자는 태어난 날의 지지 하나이고, 바로 그 자리에 사람을 끄는 기운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증이 생기는 기운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인기가 있는데 안에서는 마찰이 생기는 모양이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가까워진 뒤에 어려워지는 쪽입니다.

SAMPLE

실천은 셋입니다. 첫째, 매일 붙어 있기보다 주에 한 번 길게 보는 리듬을 만드십시오. 둘째, 서운한 일은 사흘 안에 한 문장으로 말하십시오. 쌓아서 한 번에 말하면 설명이 아니라 폭발이 됩니다. 셋째, 말이 늦게 나오는 쪽이니 하려던 말 끝에 한 문장만 더 보태십시오 — "그래서 네가 고마웠어" 같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인연만 따로 열리는 해는 없습니다. 2034년·2035년·2037년에 일과 함께 움직입니다.

견본

SAMPLE

말년

핵심: 뒤쪽에 힘이 실린 사람입니다. 쉰 이후가 서지연님의 본편입니다.

서지연님에게 힘이 되는 기운은 태어난 시각의 하늘 글자 하나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리에 좋은 글자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밀어서 여는 게 아니라 때가 와야 열린다**는 뜻이고, 그 때가 쉰 줄에 들어섭니다.
2042년부터 이어지는 두 번의 10년은 판정이 좋음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10년들이 모두 주의 쪽이었던 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 시기에 서지연님이 하게 될 일은 새로 벌이는 일이 아니라 **쌓인 것을 나눠 주는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르치고, 정리해 남기고, 사람을 모아 두는 쪽입니다.

SAMPLE

얼굴에서도 아래쪽이 넉넉해 나이 들수록 사람이 모이고 터전이 남는다고 같은 말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깊이도 이 시기에는 결핍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하실 일은 분명합니다. 그 시기에 나눠 줄 것을 지금 만드십시오. 기록을 남기고, 실력을 쌓고, 사람을 가려 두는 것 — 이 셋이 서지연님의 노후 연금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에 배운 것 한 가지를 글로 남기십시오. 20년 뒤에 그 노트가 서지연님의 가장 큰 재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 사주 근거

건강: 결핍 오행 없음, 한난조습 균형 양호. 다만 강약이 매우 약한 편이라 총량 관리가 핵심이며, 기신인 금·수·토가 겹치는 해에 부담이 커집니다.

SAMPLE

관계: 배우자성이 일지 자 하나이고 그 자리에 도화살과 원진살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상관이 양쪽에서 정관을 건드리는 구조도 가까운 관계의 마찰에 작용합니다.

말년: 용신 글자 을(乙)이 시주 천간에 있고, 시주에 정인과 상관(화개살)이 함께 있어 가르치고 남기는 쪽으로 기울며, 51세 임인·61세 계묘 대운이 좋음으로 받쳐 줍니다.

견본

SAMPLE

第 十 章

마지막으로

SAMPLE

제10장 · 마지막으로

서지연님은 초가을 오후의 볕으로 태어났습니다. 벌릴 틀은 크게 받았는데 들 힘은 적게 받았고, 힘이 되는 나무 한 글자는 인생의 뒤쪽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네 번의 10년이 모두 애쓴 만큼 돌아오지 않는 흐름이었고, 서지연님은 그 안에서 능력이 아니라 체력과 배분 때문에 지쳐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조 때문에, 앞으로가 지금까지와 다릅니다.

옛말에 **대기만성(大器晩成)**이라 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위로로 쓰면 게으름이 되고, 설계로 쓰면 전략이 됩니다. 서지연님에게는 설계입니다. 2030년까지는 쌓고, 2031년부터 2033년까지는 지키고, 2034년에 꺼내고, 2042년부터는 쌓인 것으로 사는 것 — 이 순서가 서지연님의 그릇이 완성되는 순서입니다.

견본

SAMPLE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서지연님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 시기가 서지연님의 시기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후의 볕이라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말립니다. 혼자 다 들려고 하지 마시고, 할 사람을 곁에 두시고, 하려던 말 끝에 한 문장만 더 보태시면서 이 몇 해를 지나가십시오. 그 몇 해 뒤에 서지연님은 분명히 다른 자리에 서 계실 것입니다.

견본

SAMPLE

運

판정 도해 — 지금과 앞으로의 흐름

이 사주의 시기별 길흉을 판정합니다 — 대운 · 앞으로 12년 흐름 · 월별 흐름

SAMPLE

한 줄 결론

지금(31세~40세)은 매우 주의 대운입니다.

무리한 확장보다 지키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 붉은 칸이 많을수록 나에게 이로운 십 년 · 붉은 줄이 지금 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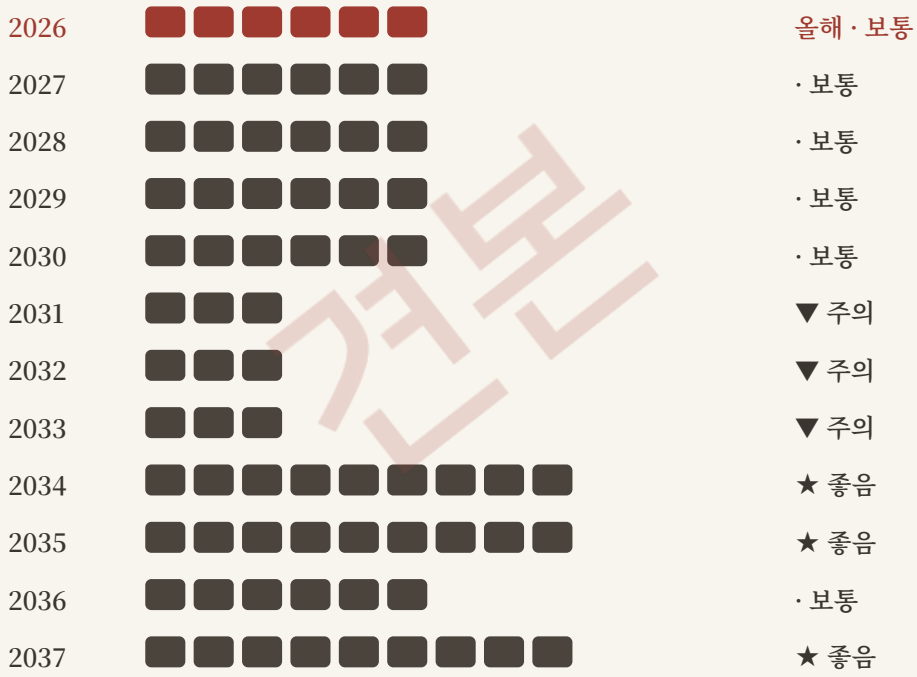
전문 풀이 — 대운(大運)은 10년 단위로 바뀌는 인생의 계절입니다. 칸이 많을수록 그 십년의 두 글자가 이 사주에 이로운 쪽입니다. 지금과 가까운 8개 구간만 실었습니다 — 나머지 대운은 부록 D에 있습니다.

SAMPLE

한 줄 결론

좋은 해는 2034 · 2035 · 2037년입니다.

주의(▼) 해는 2031~2033년입니다.



칸이 많을수록 좋은 해 · 붉은 줄이 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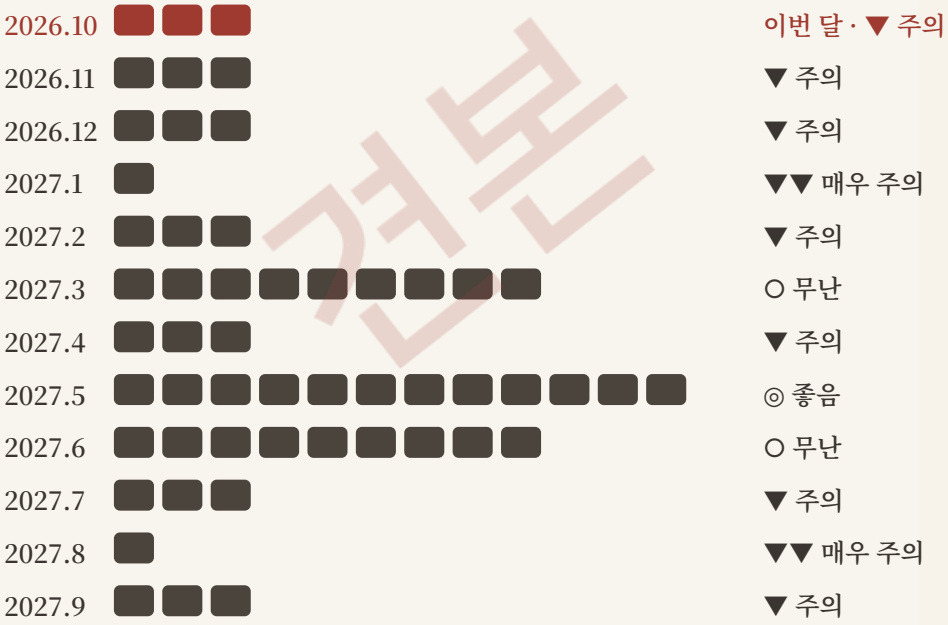
전문 풀이 — 세운(歲運) 기준 · 용신 木·火가 드는 해가 길고, 기신 土·金·水가 겹치는 해가 짧습니다. 해마다의 간지·판정 근거는 부록 E에 있습니다.

SAMPLE

한 줄 결론

좋은 달(◎)은 2027.5입니다.

무난한 달(○)은 2027.3 · 2027.6입니다. 매우 주의(▼▼) 달은 2027.1·2027.8입니다 — 큰돈과 큰 결정은 미루세요. 주의(▼) 달은 2026.10~2026.12·2027.2·2027.4·2027.7·2027.9입니다.



칸이 많을수록 좋은 달 · 붉은 줄이 이번 달

SAMPLE

전문 풀이 — 절기월(節氣月) 기준 · 지금 속한 달부터 앞으로 열두 달입니다. 달은 절기로 나뉘므로 월초 며칠은 앞 달의 기운에 속합니다 — 큰 결정은 해당 월 중순 이후가 안전합니다. 달마다의 간지·판정 근거는 부록 F에 있습니다.

견본

SAMPLE

附

부록 — 명식 데이터 전체

아래는 일반 해설이 아니라 이 사주에서 직접 산출된 값입니다

SAMPLE

부록 A · 사주팔자 명식 상세

자리	간지	천간십성	지지십성	지장간	오행	십이운성
연주	辛未	정재	상관	丁 乙 己	金·土	쇠
월주	丙申	비견	편재	戊 壬 庚	火·金	병
일주	丙子	본원	정관	壬 癸	火·水	태
시주	乙未	정인	상관	丁 乙 己	木·土	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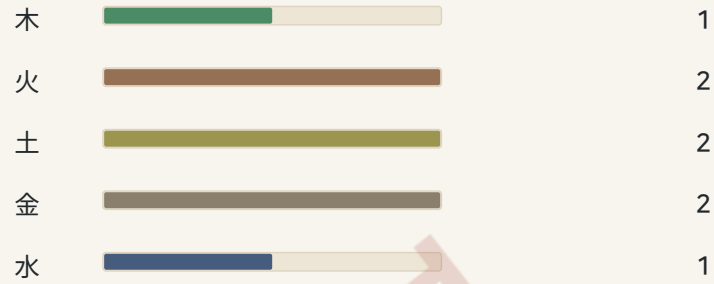
표 읽는 법 — '지장간' 칸은 그 지지 속에 든 천간이고, 지장간 속 사정에 대한 설명은 도해 三·六에 있습니다. '십이운성' 칸은 일간이 그 자리에서 갖는 기운의 세기입니다.

견본

S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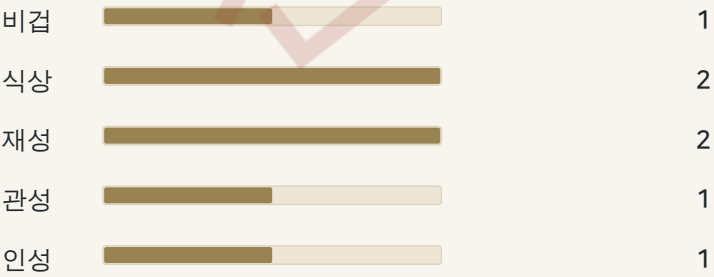
부록 B · 오행과 십성 분포

오행 (겉 여덟 글자)



결핍 오행 **없음** — 겉에 없는 기운의 지장간 사정은 도해 二·三을 보세요.

십성 (겉 일곱 자리)



가장 강한 십성 **식상** · 같은 기준의 그림과 지장간 속 사정 설명은 도해 六에 있습니다.

SAMPLE

부록 C · 신살 · 공망

신살	뜻	강도
도화살	매력과 인기, 예술적 끼, 이성에게 호감받는 기운	2
화개살	예술·종교·철학·학문적 재능, 고독을 즐기는 깊이	3
문창귀인(文昌)	글·학문·시험에 강한 총명함 — 배우고 표현하는 일에서 빛남	2
원진살(怨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생기는 미묘한 애증 — 거리 조절이 관계의 열쇠	2
삼재(巳午未년)	巳午未 해에 드는, 열두 해마다 돌아오는 세 해의 변동기입니다. 좋고 나쁨은 그해 판정을 먼저 보시고, 세 해 동안 큰 계약·이사만 한 번 더 살펴 두세요.	1

공망(空亡)

공망 지지 **申·酉** · 원국에서 공망 맞은 자리 **월**

공망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속적 결실로 남기보다 정신적·예술적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국에 없어도 대운·세운에서 만나면 그 시기에 작용합니다.

SAMPLE

부록 D · 대운 (10년 단위 인생 흐름) 대운수 1

丁酉 1세~ 1992~2001 겁재·정재 주의 대운 공망	戊戌 11세~ 2002~2011 식신(천간·지지) 매우 주의 대운
己亥 21세~ 2012~2021 상관·편관 매우 주의 대운	庚子 31세~ 2022~2031 편재·정관 매우 주의 대운 ◀ 지금
辛丑 41세~ 2032~2041 정재·상관 매우 주의 대운	壬寅 51세~ 2042~2051 편관·편인 좋음 대운
癸卯 61세~ 2052~2061 정관·정인 좋음 대운	甲辰 71세~ 2062~2071 편인·식신 주의 대운
乙巳 81세~ 2072~2081 정인·비견 매우 좋음 대운	丙午 91세~ 2082~2091 비견·겁재 매우 좋음 대운

배지는 그 십 년의 천간·지지가 용신·기신 어느 쪽에 서는지의 요약이고, 자세한 그림은 도해 七에 있습니다. 「공망」 배지가 붙은 구간은 그 대운의 지지가 공망을 맞아 세속적 성취보다 정신·예술 쪽으로 축이 옮겨가는 십 년입니다.

SAMPLE

부록 E · 세운 — 해마다의 흐름 2023~2028

2023 癸卯 보통 ·

대운 庚子 모두 기신, 그해 癸 기신·卯 용신, 卯未 반합 木, 子卯 상형

지나간 해 — 흐름을 돌아보는 참고용입니다.

2024 甲辰 보통 ·

대운 庚子 모두 기신, 그해 甲 용신·辰 기신, 子申辰 삼합 水국(기신)

지나간 해 — 흐름을 돌아보는 참고용입니다.

2025 乙巳 좋음 ★

대운 庚子 모두 기신, 그해 乙巳 모두 용신, 巳申 육합 水(기신), 巳申 파

지나간 해 — 흐름을 돌아보는 참고용입니다.

2026 丙午 올해 보통 ·

대운 庚子 모두 기신, 그해 丙午 모두 용신, 午未 육합 土(기신), 午子 충(일·대운 지지)

두 자리가 함께 흔들리는 해 — 큰 변화보다 지금 자리를 다지세요.

2027 丁未 보통 ·

대운 庚子 모두 기신, 그해 丁 용신·未 기신, 子未 해

겉은 돕고 속은 버거운 데다 잔고장도 있는 해 — 쌓아 둔 것을 다듬기 좋아요.

2028 戊申 보통 ·

대운 庚子 모두 기신, 그해 戊申 모두 기신, 子申 반합 水, 申 공망 — 좋고 나쁨이 옅어짐

지금 10년이 막아서 두 글자가 다 버거운 해 — 판정은 보통이어도 벌이기보다 지키세요. 기대도 손해도 반으로 잡으세요.

SAMPLE

부록 E · 세운 — 해마다의 흐름 2029~2034

2029 己酉 보통 ·

대운 庚子 모두 기신, 그해 己酉 모두 기신, 子酉 파, 酉 공망 — 좋고 나쁨이 옅어짐

두 글자가 다 버거운 데다 잔고장도 있는 해 — 보통이지만 지출부터 줄이는 해예요. 기대도 손해도 반으로 잡으세요.

2030 庚戌 보통 ·

대운 庚子 모두 기신, 그해 庚戌 모두 기신, 未戌 파

두 글자가 다 버거운 데다 잔고장도 있는 해 — 판정은 보통이어도 벌이기보다 지키세요.

2031 辛亥 주의 ▼

대운 庚子 모두 기신, 그해 辛亥 모두 기신, 申亥 해

두 글자가 다 버거운 데다 잔고장도 있는 해 — 벌이기보다 정리하고, 받을 것을 받아 두세요.

2032 壬子 주의 ▼

대운 辛丑 모두 기신, 그해 壬子 모두 기신, 子申 반합 水, 子丑 육합 土(기신), 子未 해

두 글자가 다 버거운 데다 묶여서 더 무거워지는 해 — 새 약속은 줄이고 지금 것을 지키세요.

2033 癸丑 주의 ▼

대운 辛丑 모두 기신, 그해 癸丑 모두 기신, 子丑 육합 土(기신), 丑未 충(년·시지)

두 자리가 함께 흔들리는 해 — 옮기고 바꾸는 일은 미루세요.

2034 甲寅 좋음 ★

대운 辛丑 모두 기신, 그해 甲寅 모두 용신, 寅申 충(월지)

일과 자리가 흔들리는 해 — 새 일을 시작해도 좋아요. 자리를 옮기는 결정만 한 번 더 보세요.

SAMPLE

부록 E · 세운 — 해마다의 흐름 2035~2040

2035 乙卯 좋음 ★

대운 辛丑 모두 기신, 그해 乙卯 모두 용신, 卯未 반합 木, 子卯 상형

작은 다툼이 번지기 쉬운 해 — 새 일을 시작해도 좋아요. 말을 아끼세요.

2036 丙辰 보통 ·

대운 辛丑 모두 기신, 그해 丙 용신·辰 기신, 子申辰 삼합 水국(기신), 丑辰 파

세 글자가 모여 부담이 커지는 해 — 쌓아 둔 것을 다듬기 좋아요.

2037 丁巳 좋음 ★

대운 辛丑 모두 기신, 그해 丁巳 모두 용신, 巳申 육합 水(기신), 巳申 파

겉과 속이 함께 돕는 듯해도 묶여서 힘이 새는 해 — 새 일을 시작해도 좋아요.

2038 戊午 보통 ·

대운 辛丑 모두 기신, 그해 戊 기신·午 용신, 午未 육합 土(기신), 午子 충(일지), 丑午 해

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흔들리는 해 — 큰 변화보다 지금 자리를 다지세요.

2039 己未 주의 ▼

대운 辛丑 모두 기신, 그해 己未 모두 기신, 未丑 충(대운 지지), 子未 해

지금 큰 흐름이 흔들리는 해 — 옮기고 바꾸는 일은 미루세요.

2040 庚申 보통 ·

대운 辛丑 모두 기신, 그해 庚申 모두 기신, 子申 반합 水, 申 공망 — 좋고 나쁨이 옅어짐

지금 10년이 막아서 두 글자가 다 버거운 해 — 판정은 보통이어도 벌이기보다 지키세요. 기대도 손해도 반으로 잡으세요.

SAMPLE

부록 E · 세운 — 해마다의 흐름 2041~2044

2041 辛酉

보통 ·

대운 辛丑 모두 기신, 그해 辛酉 모두 기신, 丑酉 반합 金, 子酉 파… — 좋고 나쁨이 옅어짐

두 글자가 다 버거운 데다 잔고장도 있는 해 — 보통이지만 지출부터 줄이는 해예요. 기대도 손해도 반으로 잡으세요.

2042 壬戌

좋음 ★

대운 壬 기신·寅 용신, 그해 壬戌 모두 기신, 未戌 파

두 글자가 다 버거운 데다 잔고장도 있는 해 — 새 일을 시작해도 좋아요.

2043 癸亥

좋음 ★

대운 壬 기신·寅 용신, 그해 癸亥 모두 기신, 寅亥 육합 木, 申亥 해, 寅亥 파

두 글자가 다 버거운 데다 잔고장도 있는 해 — 벌여 둔 일을 한 단계 키우기 좋아요.

2044 甲子

좋음 ★

대운 壬 기신·寅 용신, 그해 甲 용신·子 기신, 子申 반합 水, 子未 해

겉은 돕고 속은 버거운 데다 잔고장도 있는 해 — 방향을 정했다면 한 걸음씩 키워 가세요.

SAMPLE

부록 F · 월별 — 달마다의 흐름 2026년 10월 ~ 2027년 3월

2026년 10월 戊戌 주의 ▼

한로(10/8)~ · 월간 戊 기신, 월지 戌 기신

두 글자가 다 무거운 달 — 벌이기보다 정리에 쓰세요.

2026년 11월 己亥 주의 ▼

입동(11/7)~ · 월간 己 기신, 월지 亥 기신

두 글자가 다 무거운 달 — 지출과 약속을 줄이는 달이에요.

2026년 12월 庚子 주의 ▼

대설(12/7)~ · 월간 庚 기신, 월지 子 기신

두 글자가 다 무거운 달 — 지출과 약속을 줄이는 달이에요.

2027년 1월 辛丑 주의 매우 ▼▼

소한(1/6)~ · 월간 辛 기신, 월지 丑 기신, 丑未 충 — 그해 가장 무거운 편

자리가 흔들리는 달 — 옮기고 바꾸는 일은 미루세요.

2027년 2월 壬寅 주의 ▼

입춘(2/4)~ · 월간 壬 기신, 월지 寅 용신, 寅申 충

자리가 흔들리는 달 — 옮기고 바꾸는 일은 미루세요.

2027년 3월 癸卯 무난 ○

경칩(3/6)~ · 월간 癸 기신, 월지 卯 용신

겉은 번잡해도 속은 든든한 달 — 하던 일을 밀어붙이기 좋아요.

SAMPLE

부록 F · 월별 — 달마다의 흐름 2027년 4월 ~ 2027년 9월

2027년 4월 甲辰 주의 ▼

청명(4/5)~ · 월간 甲 용신, 월지 辰 기신

겉은 돕고 속은 무거운 달 — 벌이기보다 정리에 쓰세요.

2027년 5월 乙巳 좋음 ◎

입하(5/6)~ · 월간 乙 용신, 월지 巳 용신

겉과 속이 다 돕는 달 — 중요한 약속·계약·발표를 이 달에 두세요.

2027년 6월 丙午 무난 ○

망종(6/6)~ · 월간 丙 용신, 월지 午 용신, 午子 충

자리가 흔들리는 달 — 하던 일을 밀어붙이기 좋아요. 자리 옮기는 결정만 미루세요.

2027년 7월 丁未 주의 ▼

소서(7/7)~ · 월간 丁 용신, 월지 未 기신

겉은 돕고 속은 무거운 달 — 벌이기보다 정리에 쓰세요.

2027년 8월 戊申 주의 매우 ▼▼

입추(8/8)~ · 월간 戊 기신, 월지 申 기신 — 그해 가장 무거운 편

두 글자가 다 무거운 달 — 큰 결정과 큰 지출은 다음 달로 넘기세요.

2027년 9월 己酉 주의 ▼

백로(9/8)~ · 월간 己 기신, 월지 酉 기신

두 글자가 다 무거운 달 — 벌이기보다 정리에 쓰세요.

샘플

SAMPLE

부록 F · 월별 — 달마다의 흐름 2027년 10월 ~ 2028년 3월

2027년 10월 庚戌 주의 ▼

한로(10/8)~ · 월간 庚 기신, 월지 戌 기신

두 글자가 다 무거운 달 — 지출과 약속을 줄이는 달이에요.

2027년 11월 辛亥 주의 ▼

입동(11/7)~ · 월간 辛 기신, 월지 亥 기신

두 글자가 다 무거운 달 — 지출과 약속을 줄이는 달이에요.

2027년 12월 壬子 주의 ▼

대설(12/7)~ · 월간 壬 기신, 월지 子 기신

두 글자가 다 무거운 달 — 지출과 약속을 줄이는 달이에요.

2028년 1월 癸丑 주의 매우 ▼▼

소한(1/6)~ · 월간 癸 기신, 월지 丑 기신, 丑未 충 — 그해 가장 무거운 편

자리가 흔들리는 달 — 옮기고 바꾸는 일은 미루세요.

2028년 2월 甲寅 무난 ○

입춘(2/4)~ · 월간 甲 용신, 월지 寅 용신, 寅申 충

자리가 흔들리는 달 — 하던 일을 밀어붙이기 좋아요. 자리 옮기는 결정만 미루세요.

2028년 3월 乙卯 좋음 ◎

경칩(3/6)~ · 월간 乙 용신, 월지 卯 용신

겉과 속이 다 돕는 달 — 중요한 약속·계약·발표를 이 달에 두세요.

견본

SAMPLE

부록 F · 월별 — 달마다의 흐름 2028년 4월 ~ 2028년 9월

2028년 4월 丙辰 주의 ▼

청명(4/5)~ · 월간 丙 용신, 월지 辰 기신

겉은 돕고 속은 무거운 달 — 벌이기보다 정리에 쓰세요.

2028년 5월 丁巳 좋음 ◎

입하(5/6)~ · 월간 丁 용신, 월지 巳 용신

겉과 속이 다 돕는 달 — 중요한 약속·계약·발표를 이 달에 두세요.

2028년 6월 戊午 주의 ▼

망종(6/6)~ · 월간 戊 기신, 월지 午 용신, 午子 충

자리가 흔들리는 달 — 옮기고 바꾸는 일은 미루세요.

2028년 7월 己未 주의 매우 ▼▼

소서(7/7)~ · 월간 己 기신, 월지 未 기신 — 그해 가장 무거운 편

두 글자가 다 무거운 달 — 큰 결정과 큰 지출은 다음 달로 넘기세요.

2028년 8월 庚申 매우 ▼▼ 주의

입추(8/8)~ · 월간 庚 기신, 월지 申 기신 — 그해 가장 무거운 편

두 글자가 다 무거운 달 — 몸부터 살피고, 서명은 미루세요.

2028년 9월 辛酉 주의 ▼

백로(9/8)~ · 월간 辛 기신, 월지 酉 기신

두 글자가 다 무거운 달 — 벌이기보다 정리에 쓰세요.

샘플

SAMPLE

부록 F · 월별 — 달마다의 흐름 2028년 10월 ~ 2029년 1월

2028년 10월 壬戌 주의 ▼

한로(10/8)~ · 월간 壬 기신, 월지 戌 기신

두 글자가 다 무거운 달 — 지출과 약속을 줄이는 달이에요.

2028년 11월 癸亥 주의 ▼

입동(11/7)~ · 월간 癸 기신, 월지 亥 기신

두 글자가 다 무거운 달 — 지출과 약속을 줄이는 달이에요.

2028년 12월 甲子 주의 ▼

대설(12/7)~ · 월간 甲 용신, 월지 子 기신

겉은 돕고 속은 무거운 달 — 벌이기보다 정리에 쓰세요.

2029년 1월 乙丑 주의 ▼

소한(1/6)~ · 월간 乙 용신, 월지 丑 기신, 丑未 충

자리가 흔들리는 달 — 옮기고 바꾸는 일은 미루세요.

견본

SAMPLE

부록 G · 명리·관상 용어 풀이

일간(日干)
태어난 날의 천간. 사주에서 「나 자신」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사주팔자
태어난 연·월·일·시를 각각 두 글자씩 표시한 여덟 글자입니다.

천간(天干)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열 글자. 겉으로 드러나는 기운입니다.

지지(地支)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열두 글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기운입니다.

지장간(支藏干)
지지 속에 숨어 작용하는 천간. 겉으로 안 보이는 실제 힘입니다.

오행(五行)
목·화·토·금·수 다섯 기운. 서로 낳고 누르며 균형을 이룹니다.

격국(格局)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방식. 명식의 큰 틀입니다.

용신(用神)
이 사주에 이로운 기운. 이것이 들어오는 시기에 일이 풀립니다.

견본

SAMPLE

부록 G · 명리·관상 용어 풀이

기신(忌神)
이 사주에 부담이 되는 기운. 이 시기에는 방어적으로 운용합니다.

신강·신약
일간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강약에 따라 용신이 달라집니다.

십성(十星)
일간과 다른 글자의 관계를 다섯 갈래로 나눈 것입니다.

비겁(比劫)
나와 같은 기운. 자립심·주체성·동료·경쟁자를 뜻합니다.

식상(食傷)
내가 만들어내는 기운. 표현·창작·재능·베풂을 뜻합니다.

재성(財星)
내가 다스리는 기운. 재물·실리·현실 감각을 뜻합니다.

관성(官星)
나를 다스리는 기운. 규율·명예·직장·책임을 뜻합니다.

인성(印星)
나를 낳아주는 기운. 배움·문서·보호·어머니를 뜻합니다.

견본

SAMPLE

부록 G · 명리·관상 용어 풀이

대운(大運)
10년 단위로 바뀌는 인생의 큰 계절입니다.

세운(歲運)
한 해 한 해의 운. 대운이라는 계절 속의 날씨입니다.

십이운성
일간이 각 자리에서 갖는 기운의 세기. 장생·건록·제왕이 왕성한 자리입니다.

신살(神煞)
특정 조합에서 나타나는 기운의 특징. 길신과 흉살이 있습니다.

공망(空亡)
비어 있는 자리. 세속적 결실보다 정신적 방향으로 전환되는 기운입니다.

형충(刑沖)
지지끼리 부딪는 관계. 마찰이 생기지만 전환의 계기도 됩니다.

삼합(三合)
세 지지가 모여 하나의 강한 기운을 이루는 것입니다.

절기(節氣)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마디. 사주의 월은 절기로 나눕니다.

견본

SAMPLE

부록 G · 명리·관상 용어 풀이

관상(觀相)
얼굴에 쌓인 기운을 읽는 것. 타고난 골격 위에 살아온 마음이 새겨집니다.

명궁(命宮)
관상에서 미간 자리. 그 사람의 정신이 머무는 곳입니다.

재백궁(財帛宮)
관상에서 코. 재물과 자기 자신을 함께 봅니다.

지각(地閣)
관상에서 턱 아래 부위. 말년운과 아랫사람 복을 봅니다.

성격(成格)
격이 제대로 섰다는 뜻. 흔히 쓰는 성품의 「성격(性格)」과는 다른 말입니다.

식상생재(食傷生財)
만들고 표현하는 힘이 재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조후(調候)
사주의 춥고 더움을 고르는 것. 겨울 사주엔 불, 여름 사주엔 물이 필요합니다.

억부(抑扶)
일간의 힘이 넘치면 눌러 주고 모자라면 받쳐 주는 것. 용신을 정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SAMPLE

부록 G · 명리·관상 용어 풀이

삼재(三災)
띠를 기준으로 열두 해마다 세 해씩 돌아오는 변동의 시기. 좋고 나쁨은 그 해의 판정을 먼저 봅니다.

비견·겁재(比肩·劫財)
비겁의 두 갈래. 비견은 나와 같은 힘, 겁재는 나와 경쟁하는 힘입니다.

식신·상관(食神·傷官)
식상의 두 갈래. 식신은 안정된 표현과 베풂, 상관은 날카로운 표현과 재능입니다.

정재·편재(正財·偏財)
재성의 두 갈래. 정재는 꾸준히 모으는 재물, 편재는 크게 움직이는 사업·투자의 재물입니다.

정관·편관(正官·偏官)
관성의 두 갈래. 정관은 바른 규율과 명예, 편관은 거친 압박과 승부의 기운입니다.

정인·편인(正印·偏印)
인성의 두 갈래. 정인은 바른 배움과 보호, 편인은 독특한 재능과 홀로 하는 사색입니다.

육합·반합(六合·半合)
육합은 두 지지가 짝을 이루는 합, 반합은 삼합 셋 가운데 둘만 모인 약한 합입니다.

SAMPLE

玄潭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서지연님의 흐름을 여기 담았습니다.

이 감정서는 정답지가 아니라 판단의 근거입니다.
명리는 타고난 구조와 시기의 흐름을 읽는 기술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업·투자·이직·계약 등 모든 결정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기관에, 법률 분쟁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감정서는 의료·법률·투자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현담. 본 감정서의 디자인·양식·구성 및 감정 방식 일체에 대한 권리는 현담에 있습니다. 구매자 본인의 열람 외 무단 복제·배포·전송 및 2차 이용을 금합니다.

SAMPLE

저작권 고지

이 감정서의 문장, 구성, 도해, 해설 체계 및 편집 형식 일체는 현담에 귀속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감정서는 의뢰인 한 분의 개인 열람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전재·배포하거나, 다른 사주·운세 상품의 제작에 활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장의 구조, 목차의 체계, 도해의 양식, 그리고 "현담" 및 "사주 관상 심층 정밀감정서"라는 명칭을 모방하여 유사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또한 이에 포함되며, 해당 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습니다.

공개된 견본에도 본 고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감정서에는 고유 발급번호와 발급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출 시 발급 경로가 특정됩니다.

© 2026 현담. All rights reserved.

SAMPLE